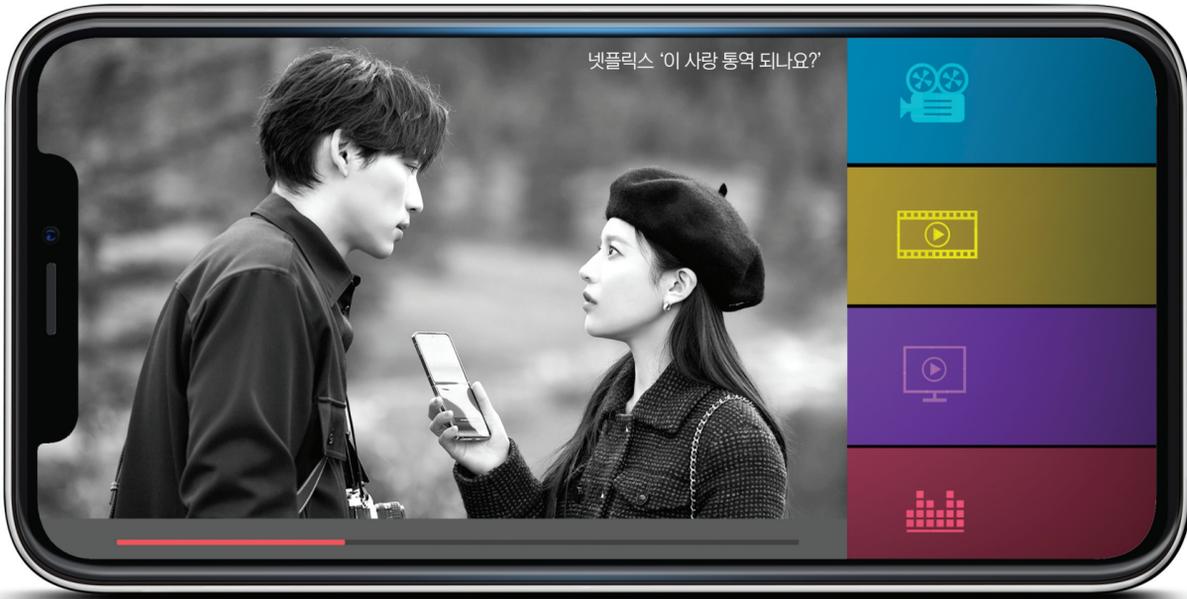


# 안방극장 사로잡는 '한·일 합작'

# 설 극장가 승자는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400만명 돌파... '휴민트' 2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14~18일 닷새간 267만5000여명(매출액 점유율 62.5%)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은 417만4000여명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 구교환·문가영 주연의 멜로 '만약에 우리' (244만2000여명)를 제치고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연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지인 강원 영월에서 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렸다. 배우 유혜진이 총장 역으로 주연을 맡았고 장항준 감독이 연출했다.

조인성·박정민 주연의 첩보 액션물 '휴민트'는 같은 기간 98만여명이 관람해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28만4천여명이다. '신의 약단' (13만여명), 최우식·장혜진 주연의 '남버원' (12만2000여명), '만약에 우리' (4만30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예매율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흥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왕과 사는 남자'는 예매율 50.3%(예매 관객 수 16만6천여명)로 가장 높았다. '휴민트'가 16.7%(5만5000여명)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일 합작 콘텐츠가 이전 단발성 실험의 수준을 넘어 보편화하고 있다. 양국 배우들의 동반 출연부터 제작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IP) 공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동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새해 첫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로 공개된 '이 사랑 통역 되나요?'에는 일본의 톱 배우 후쿠시 소타를 비롯해 재일교포 배우 현리 등이 고윤정·김선호 등 한국 배우 및 제작진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단순히 한국 작품에 일본 배우를 섭외하는 수준을 넘어 '동역'과 '다국적 로맨스 예능'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한일 양국의 각기 다른 언어와 풍경, 문화 등을 섬세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2주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또 현재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에서 방영 중인 나카무라 도모야 주연의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는 한국 CJ ENM과 일본 TBS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아이들을 꾸꾸는 한국의 한 중소 기획사 연습생들과 일본의 천재 프로듀서가 데뷔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설정을 통해 한국의 K팝 문화를 일본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하연수, 이이경, 김재경 등 한국 배우들의 대거 출연으로 한일 합작 콘텐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일본 문화 전문 채널인 채널J와 tvN, OTT 플랫폼 티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일 양국의 협업은 간헐적인 이벤트에 가까웠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구리 순·한호주 주연의 일본 시리즈 '로맨틱 어니니머스'나 2024년 쿠팡플레이가 공개한 이세영·사카구치 겐타로 주연의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은 한일 양국의 배우가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일본 TBS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

글로벌 OTT, 아시아 공략 카드 '이 사랑...'·'드림...' 등 인기 양국 배우 동반 출연·지재권 공유 공동 제작 등 '콘텐츠 동맹' 확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 포스터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일 합작'이 하나의 거대한 주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일 양국 배우들의 교차 출연이다.

먼저 디즈니+는 한국 배우인 지창욱과 일본 배우인 이마다 미오 주연의 로맨스물 '메리 베리 러브'를 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넷플릭스에서도 손석구·나가야마 에이다 주연의 스릴러물 '로드', 옥택연·이소무라 하야토 주연의 쿼터볼 '쇼울 메이트' 등을 올해 공개작 라인업에 포함했다.

한일 양국 배우들이 한 화면에 담기는 모습이 더 이상 생경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순한 출연진의 혼합을 넘어 제작 시스템 자체를 결합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지난해 공개된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일본 최대 OTT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역대 아마존 오리지널 드라마 중 일본 내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가장 성공한 한일합작 콘텐츠 제작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한일 합작 콘텐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와 열악해진 국내 콘텐츠 제작 여건, 일본의 거대한 내수 수요 등을 꼽고 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에서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한일 양국의 시청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작 콘텐츠가 효율적인 카드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콘텐츠 제작비가 치솟으면서 국내 방송 시장과 광고 수익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어려워진 제작사들 입장에선 공동 제작을 통해 제작비는 분담하고 한일 양국 시장에서 수익을 동시에 창출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계산도 함께 담겨 있다. /연합뉴스

# 세계가 인정한 '스트레이 키즈'

지난해 IFPI '글로벌 아티스트' 2위...세븐틴 14위



그들 스트레이 키즈와 세븐틴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던 가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8일(현지시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표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2025'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세븐틴은 14위에 자리했다.

전 세계 8천개 이상 음반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IFPI는 매년 실물 음반 판매량,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수치를 종합해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를 산출한다. 이 차트는 그해 가장 큰 인기를 끈 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7위로 처음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 오른 이래 4년 연속 진입했으며, 이번에 팀 통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븐틴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통산 여섯 번째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원기소 서울약품주 Since1956 일반의약품

# 원기소플러스 정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원기소플러스는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호모·효소·유산균 복합제제 추석명절에는 "원기소플러스"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 호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호모속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호모속 베타글루칸은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 ✓ 호모속 비오틴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 효능·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장, 변비, 영양, 과식, 체감,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